**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03-18**

지난 수요일, 기도회를 마친 후 아내와 잠시 교회 근처에 위치한 윈코(WinCo)에 들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래 전 윌로우크릭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던 카니라는 자매였습니다. 10여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카니가 말해준 한 가지 내용이 아내와 저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마음교회 근처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관계로 교회 앞을 자주 지나며 그동안 우리 교회가 외관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아온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고 있는 난민 사역에 대해서도 들어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카니는 오래 전 윌로우크릭 교회를 섬길 때 혼자서 건너편 예배당과 이곳 교육관 부지를 밟고 걸으며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이곳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땅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지금 한마음교회를 통해 응답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교적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한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한 자매의 기도가 한마음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앞서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사람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일을 이루십니다. 때로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고 미약한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기도를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로 채워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도는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게 합니다. 기도는 흐린 미래의 비전을 선명하게 해줍니다. 기도는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당장 오늘과 내일 사이에 어떤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기도는 조용한 골방에서, 고요한 새벽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만 고백하는 내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니 자매가 나누어 준 이야기처럼, 우리의 기도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우리 개개인의 삶과 비전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큰 꿈과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합시다.